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박도호 교수

I. 서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령님은 누구인가?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의 성경의 다른 핵심 교훈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교회도 신·구약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더욱이 현대 우리의 세계에 교회에 대한 많은 혼란이 생겼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교회에 속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가입해 있다. 한국에는 많은 교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떤 교파에 속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해 직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1. 성경에 나타난 교회

1) 교회와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을 맺으셨다(창 12~13장). 그 언약은 볼 수 있는 사건과 회중이었고 그 표시는 할례였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επαγγελίαι)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롬 9: 4, 5). 구약의 언약은 계속 이어져 신약에서 다시 새로워졌다(렘 31: 31-34; 히 8: 8-12). 예수님은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마 26: 28). 이제 언약의 표시는 할례가 아니고 세례가 되었다(행 2: 39; 골 2: 11, 12).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중간의 말세에 대대로 하나님의 온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존재한다. 믿음을 떠나서 구원은 없다(행 4: 12; 갈 3: 26). 그리고 신앙은 참된 복음을 듣는 데서 오는 것이다(롬 10: 8-17). 교회는 설교와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참된 신앙이 형성되는 곳이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교회와 다원적 형태(pluriform)의 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들을 수 없거나 불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설교에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이지 격리된 개인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 4에서 교회는 교제와 성(만)찬과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위한 장(場)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하나의 몸이다(고전 12: 12-31). 다시 말하면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다원

적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불신앙과 교제를 할 수 있으며 의식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교제를 가질 수 있겠는가?

2.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교회

16세기에 나타난 칼빈주의 신앙고백서인 벨직 고백서(화란), 프랑스 고백서, 헬베틱 고백서(스위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장로교, 원래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였음)에 의하면 교회의 세 가지 표시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순수한 말씀선포, 적절한 성례집행 그리고 성경적 교회권정이다.

1) 순수한 말씀선포

우리가 본 대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라고 하는데 신약에서 사도들은 잃어버린 자를 불들기 위해 설교했고, 그들은 교회를 세워서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을 양육했다. 이 교회는 믿음을 굳게 하고 불신자를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 목사가 세움을 받았다. 참된 교회와 그릇된 교회의 커다란 차이점은 전파되는 메시지에 있다(갈 1: 3-9).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전파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전 2: 1, 2).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려지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있다.

2) 적절한 성례집행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시는 성례인데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다. 어떤 교회는 세례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침례교, 오순절교, 로마 가톨릭). 침례교에서는 오직 믿는 자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언약이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창 12~17장; 행 2: 39; 골 3: 20; 엡 6: 1). 신자의 자녀들은 세례의 표를 받는다. 그들은 신앙을 가지도록 부름을 받았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가 자동적으로 사람을 중생시킨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단순한 세례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전 1:17).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 때에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거기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남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특별한 사귀음을 갖게 된다.

3) 성경적 교회권징

이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시일 것이다. 어떤 교파에는 성경에 있는 개체의 회중과 그 설교자가 있지만 대개 교회권징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구약도 함께)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그릇된 교훈은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용납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릇된 교훈은 자유주의이다(해방신학, 민중신학 등). 자유주의를 용납하는 교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 성경적 교회권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삼고 우리의 교회의 사귀음은 오직 그분에게만 기초를 두고 있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행 4:12; 갈 1장; 고후 11:13-15, 그릇된 사도들은 그릇된 예수를 전파한다 <4절>)

3. 역사상 그리고 오늘의 교회

복음은 종교개혁 때에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이 재발견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칭의”(sola fide),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sola gratia)이다. 개혁교회와 로마 가톨릭, 자유주의, 이단들(물론, 여호와의 증인 등)과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참된 교회는 개혁되며 끊임없이 개혁되고 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주, 무오한 성경, 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

허 순 길 교수

성경은 “그(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골 1:18).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기 쉽게 가르쳐 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머리”란 바로 권위의 대명사로 이해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요 왕이시다. 그가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행 20:28), 교회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러기에 그만이 교회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왕적 권위를 가진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엡 1:23). 이 사실은 온 몸의 건전한 발육이 머리의 지시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처럼 교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도 머리가신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보장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상의 진리는 교회의 지도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이